

Contents

통계로 보는 국제물류

- 코로나19로 자동화에 따른 일자리 위험 증가 가속화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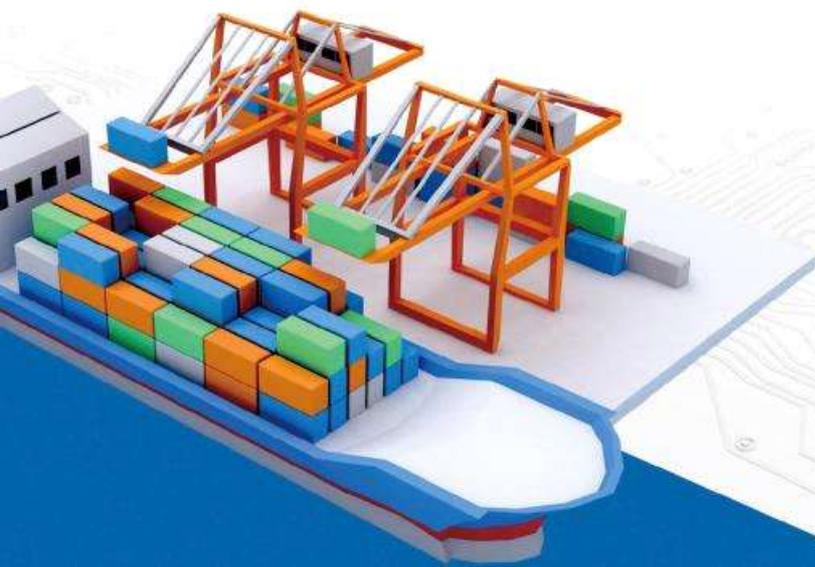
물류정책·산업동향

1. APMT, 건화물 항만시설 개발 추진
2. 중국 알리바바,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 확장 지속 추진
3. 북미항로, 전례 없는 선박 부족 현상 발생
4. EU, 2022년부터 해운업에도 탄소배출거래제 적용할 듯

명사 스피치

“이번 인천 북항배후단지 복층 2차 입주기업 모집을 통해 북항 목재화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입주기업들의 물류비 절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인천항만공사 이정행 운영부문 부사장
(2020. 10. 29. /코리아슈핑가제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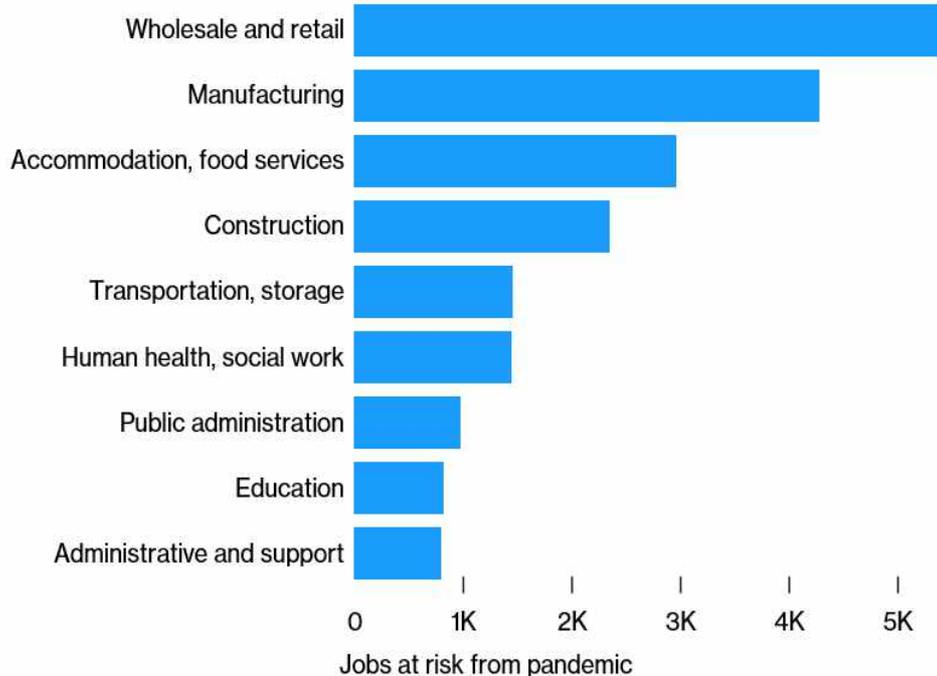




통계로 보는 국제물류

코로나19로 자동화에 따른 일자리 위험 증가 가속화 중

코로나19의 산업부문별 일자리 감소 위험



자료: McKinsey

주: 숫자가 클수록 일자리 영향이 큼

-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물류, 제조,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로봇의 역할이 중요해지기 시작함
 - 특히 유럽 경제가 코로나19로부터 회복하기 시작하면 지금보다 더 많은 일자리가 로봇으로 대체될 것으로 예상됨
- 최근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까지 전 세계 약 5,300만 개의 일자리가 자동화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인력의 약 20%에 해당하는 수준임
 - 특히 도소매업에서 70%, 숙박업 및 식품 서비스업에서 94%의 일자리가 향후 자동화로 대체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됨
- 통상 10년 정도에 걸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었던 자동화 현상이 코로나19로 인해 매우 급격히 나타나고 있음

참고자료 : www.bloomberg.com(검색일: 2020.10.26.)



APMT, 건화물 항만시설 개발 추진

- 머스크 그룹의 GTO인 APMT(APM Terminals Poti)와 PNTC(Poti New Terminals Corporation)는 흑해 동부 연안의 포티해항(Poti Sea Port) 북쪽에 새로운 건화물 항만시설 공동 개발을 위한 협약을 체결함
- 협약에 따라 APMT는 방파제 신축, 안벽 400m, 선박 흘수 최대 13.5m 준설에 투자할 계획이며, PNTC는 넓은 야드 면적과 철도 연결 등 대량 건화물 처리 시설을 새로 건설하는 데 투자할 예정임
- 신설되는 건화물 항만시설은 약 1,000만 톤 추가 수용이 가능하며, 항만 건설 프로젝트 1단계에서 건설될 계획임
- APMT의 Keld Mosgaard Christensen 상무이사는 “파나막스 선박을 수용하고 25ha 면적에 다양한 유형의 화물을 처리할 수 있는 현대식 건화물 시설을 갖춘 포티해항은 지역 공급망을 보다 효율적으로 만들고, 새로운 상업 활동 촉진 및 직·간접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어 지역 사회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언급함

포티해항(Poti Sea Port) 건화물 항만시설 설계도



자료 : <https://www.apmterminals.com/en/news/news-releases/2020/201023-poti-bulk-terminal>(검색일: 2020.10.26)

참고자료 : www.apmterminals.com(검색일: 2020.10.26)

이경미 연구원

051-797-4644, kmlee@kmi.re.kr





중국 알리바바,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 확장 지속 추진

- 중국의 전자상거래 대기업인 알리바바(Alibaba)는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음
- 알리바바는 최근 이스라엘 해운선사 짐(ZIM) 및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 (AliExpress)와 협력 계약을 체결하여 벌크 품목을 위한 국경 간 공급망 솔루션을 출시함
 - 이번 계약을 통해 알리바바의 고객들은 해당 선사와 직접 운송 예약을 할 수 있게 되었음
- 알리바바의 총괄 책임자는 알리바바와 짐은 타 기업들과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해당 산업의 표준 재편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언급함
 - 전략적 협력을 통해 고객들에게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공급망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나아가 글로벌 디지털 무역의 폭발적인 성장에 대한 강력한 지원 방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짐의 대표 역시 이번 알리바바와의 협력은 좋은 기회이자 상호 이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함
 - 또한 이를 통해 전자상거래 고객은 물론 중소기업을 위해 디지털 서비스를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힘
- 한편 알리익스프레스는 알리바바의 물류부서(Cainiao Smart Logistics Network)와 라스트 마일 물류 공급업체와 협력하여 국경 배송 시간을 크게 단축함
 - 특히 중국-유럽 간의 평균 배송 시간을 30% 이상 크게 단축시킨 것으로 나타남
 - 현재는 스페인, 프랑스 등의 소비 시장에 10일 이내로 상품 배송이 가능해짐
- 알리익스프레스는 향후 유럽 시장으로의 진출을 가속화하기 위해 '유럽 역내 운송 네트워크 (intra-Europe trucking network)'를 개발함
 - 해당 네트워크는 고급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가장 효율적인 적재 계획과 운송 경로를 수립함과 동시에 실제 배치할 최적의 트럭 수를 파악하여 정보를 제공함
- 또한 가구 및 오토바이와 같은 상대적으로 부피가 큰 품목을 운송하는 데 초점을 맞춘 국경 간 서비스를 개시했으며, 해당 서비스를 통해 길이와 너비가 4m 이상이거나 무게가 300kg 이상인 제품의 운송이 가능해짐

■ 참고자료 : www.theloadstar.com(검색일: 2020.10.24.)

이기열 부연구위원

051-797-4670, kylee@kmi.re.kr



북미항로, 전례 없는 선복 부족 현상 발생

- 극동-북미항로 컨테이너 물동량이 역대 최다를 기록함
 - 10월 클락슨(Clarksons)이 발표한 9월 통계에 따르면 로스앤젤레스(LA: Los Angeles)항 물동량이 전년 동월 대비 13% 증가한 88만 4,000 TEU, 롱비치(LB: Long Beach)항이 13% 증가한 79만 6,000 TEU를 각각 기록함
 - 9월 LB항 실적은 두 달 전인 7월 실적을 상회하는 개장 이후 역대 최다 실적임
 - LA-LB 양항 합계 9월 물동량은 167만 9,000 TEU로 8월의 168만 7,000 TEU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역대 2위 기록임
- 코로나19로 올해 상반기 물동량이 급감했지만 이후 코로나19가 완화됨과 동시에 여름철 성수기가 겹쳐 7~8월 역대 최다 물동량 실적을 기록했는데, 9월에 이를 경신하는 양상임
 - 일본발 물동량 최대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 일본 선사인 오션네트워크익스프레스(ONE: Ocean Network Express)는 극동-북미항로에서 선복과 컨테이너가 부족한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언급함
 - ONE은 극동-북미항로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사들이 가능한 한 공평하게 선적을 하고 있지만, 화물을 실지 못하는 롤오버(roll over) 현상이 발생하면서 일부 화주들의 불만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함
 - 일반적으로 10월초의 중국 국경절 연휴가 끝나면 동 항로에서 물동량이 줄어드는데, 코로나19 완화로 미리 재고 물량을 확보하려는 시도가 이어지면서 극동-북미항로에서 전례 없는 선복 부족 현상이 발생함
- ONE을 비롯한 극동-북미항로 서비스 제공 선사들은 지난 6월까지 감선·감편을 실시했지만 6월 이후 물동량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10월에는 임시선까지 투입하고 있음
 - 급증하는 물동량을 선복 공급이 따라가지 못해 한·중·일 등 아시아 곳곳에서 롤오버 현상이 발생하였음
- 한편 ONE은 고객 화물을 공평하게 선적하겠지만 일본 제조업을 확실하게 지원하고 싶다고 강조하는 등 자국 화물의 원활한 운송에 주력할 계획을 밝혔음

■ 참고자료 : www.secure.marinavi.com(검색일: 2020.10.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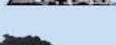
안영균 전문연구원

051-797-4643, ahnyg@kmi.re.kr



EU, 2022년부터 해운업에도 탄소배출거래제 적용할 듯

- 지난 9월 15일 유럽의회는 탄소배출거래제(ETS, Emission Trading System)를 2022년부터 해운업에도 적용하기로 결의함
 - EU는 탄소배출거래제를 해운업으로 확대하여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뿐만 아니라 침체된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전략적 수단으로 고려하고 있음
 - 탄소배출거래제를 해양 분야로 확대 적용할 경우 연간 100억 유로의 경제적 이익을 예상하고 있음
 - 아울러 발생한 경제적 이익을 환경보호와 친환경 에너지 산업에 투자하도록 유도하여 유럽 지역의 탄소 중립화 목표를 달성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함
- 유럽 환경 단체는 유럽계 글로벌 선사인 MSC가 유럽 최대항공사인 라이언에어(Ryanair)보다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2019년 기준)하고 있음을 상기시키며 유럽지역에서 탄소배출거래제를 해운업으로 확대하는 계획에 적극적인 의지를 밝힘

EU 탄소배출원 10대 시설 및 기업			
Rank	Type of company	Name of the operator	2019 emissions (Mt CO2)
1.		Power Plant Bełchatów (PL)	32.74
2.		Power Plant Neurath (DE)	22.60
3.		Power Plant Niederaußem (DE)	18.43
4.		Power Plant Jänschwalde (DE)	17.61
5.		Power Plant Weisweiler (DE)	13.30
6.		Power Plant Boxberg WerkIV (DE)	11.05
7.		Mediterranean Shipping Company (CH-IT)	10.72
8.		Ryanair (IE)	10.53
9.		Power Plant Schwarze Pumpe (DE)	10.48
10.		Power Plant Koźmice (PL)	10.46

자료 : <https://splash247.com/european-parliament-to-vote-this-week-on-whether-to-include-shipping-in-eus-emissions-trading-system/>

-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에 따르면 국제 해운 분야에 탄소배출거래제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영향을 받을 제3국 교역 파트너로서 중국, 인도, 일본, 한국 등을 언급함

참고자료 : www.container-news.com(검색일 2020.10.6.), www.splash247.com(검색일 2020.10.6.)